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5월 2일(부활 제5주일)		5월 9일(부활 제6주일)	
새벽 미사	해 설	도정숙 메히틸다		안정준 바오로	
	1독서	변은숙 M.막달레나		박동주 F.로마나	
	2독서	권미라 리오바		방경자 레지나	
교중 미사	해 설	김광순 카타리나		김재실 에바리스또	
	1독서	최효찬 프란치스코		김영자 프란치스카	
	2독서	이경자 유스티나		조순순 안나	
화 답 송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5월 3일(월)	5월 4일(화)	5월 5일(수)	5월 6일(목)	5월 7일(금)
해설	이상희 로사	김재실 에바리스또	이정애 실비아	차화선 스텔라	최옥영 M.막달레나
독서	방경자 레지나	순교자의 모후	애덕의 모후	성실하신 모후	자비로운 모후

5월 2일 (부활 제5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신희락(요아킴), 박재현(요한보스코)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성지공원분과
	미사안내	전례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박종탁(알폰소)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주양원(요셉) 후: 백죽엽(예로니모)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5월 9일 (부활 제6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진호재(라파엘), 이천희(필립보)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총무분과
	미사안내	구역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최효찬(프란치스코)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박안홍(시몬) 후: 박계현(프란치스코)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사랑터

제1732호

부활 제 5주일(생명주일)

2021년 5월 2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010-8551-2906(연령회장)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6시어린이, 18:30특전 / (주일) 6:30, 10:30

- 성모성월 고리기도
 - 월, 수, 금, 일: 19시30분
 - 화, 목, 토: 미사 후
 - 성모의 밤: 5/25일(화)19시30분
 - 일정표: 게시판 참조
- 대산공소 미사 5/9(주일)14시
 - 동행: 천상의 모후 Pr.(성당13:30분 출발)
- 전입을 환영합니다.
 - 노말숙 루시아(6구역 주호,본산)

- 병자영성체 안내
 - 5/6(목)10시 출발
 -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교중미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구역별로 분산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6주일 (5/8-9일)	특전(18:30)	3구역	주님승천대축일 (5/15~16일)	특전(18:30)	4구역, 6구역
	새벽(06:30)	1구역, 기타		새벽(06:30)	3구역
	교중(10:30)	2구역, 5구역		교중(10:30)	1구역, 기타
		4구역, 6구역			2구역, 5구역

-사정이 있는 분들은 원하시는 미사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교구청 신축모금 봉헌
 - 그동안 유예했던 교구청 신축기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 개인 봉헌 액수: 1년치 이상 교무금 (2년동안 분납가능)
 - 교구청 건립은 6월경 기공식 예정, 내년 9월 완공 예정
 - 본당으로 봉헌바랍니다.

교구청신축기금 본당계좌
농협843-01-070968
(재)마산교구천주교회 진영성당

교구청신축모금 : 4월24일(토)-4월30일(금)					
윤정두 마태오, 정미화 M.막달레나(완), 김재열 모니카(완) 김수자 노엘라(완), 이현호 요한(1-2), 박정희 안나(1-6) 서원미 엘리사벳(3)				이번주 봉헌액: 3,170,000원 누 계:18,555,000원	
교 무 금 : 4월24일(토)-4월30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채경수(라파엘)	4	김연겸(세례자요한)	4-6	김언순(마리아)	2-4
김재실(에바리스또)	4	심우선(베로니카)	4-5	조명분(막달레나)	5
김경순(율리아나)	5	박두리(아네스)	4	박순연(마리아)	4
김양금(헬레나)	5	김영애(다리아)	4	오종두(베드로)	3-5
정상중(벤자민)	4	엄복순(아셀라)	4	한승순(안젤라)	3-5
윤정두(마태오)	5	송영성(베드로)	1-3	양재연(젬마)	3
신성철(안토니오)	4	허정숙(아네스)	4	서혜란(M.막달레나)	4-5
김창훈(가네시오)	4	정이숙(모니카)	4	안정준(바오로)	3-4
조운제(요셉)	4	김선희(베아다)	4	이화자(안젤라)	4
김경선(다리아)	4	윤혜옥(엠마)	4	백죽엽(예로니모)	4
이장선(요한)	4	김재열(모니카)	6-8	김수자(노엘라)	5-6
이현호(세례자요한)	4	김태희(마르코)	5-6	권지완(제랄드)	1-4
박정희(안나)	5	김양숙(아가다)	3-5	최효찬(프란치스코)	4
서원미(엘리사벳)	5	최은희(바울라)	4	장희주(아가다)	4
박상옥(안토니오)	4				
교구사업모금(2021년 배정액2,790만원중 541만원 봉헌)					
조명분(막달레나)	5	양재연(젬마)	3	이흥기(요한)	완납
서혜란(M.막달레나)	4-5	안정준(바오로)	3-4	김재열(모니카)	6-8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례자		306명
			교무금		3,043,000원
			주일헌금		1,813,500원
			성소주일 2차헌금		628,000원
			교구사업모금		266,000원
			성소후원금		93,000원

[영혼의 양식]

향

종교의식에 향을 쓰는 것은 고대 원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례상 사용하는 향은 하느님의 절대성 앞에 바치는 최고의 경배 사상에서 나온다. “나의 임금님이 몸을 누이신 방에 나르드 향내 그득 채우리라. 가슴에 품은 유향 꽃송이 같은 내 사랑”(아가 1,12-13)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왕권에 대한 승복의 상징으로 향을 말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세 박사도 향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권에 승복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태 2,11)

향은 절대자 앞에 바치는 최고 흠숭의 뜻을 가지며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 앞에 바치는 제물과 기도의 상징이다. 그래서 성체 앞에서나 대례 미사 때 향불을 피운다. 특별히 초상 때 고별 의식에서 바치는 향은 인간이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가 향의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기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자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망자를 위해 기도한다. 그분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의 절대권 앞에 인간은 향불로써 그에게 승복하며 은혜를 기원하는 뜻으로 향을 사용한다.

모든 것을 아는가?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하느님께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신다고 확신합니까?”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하시며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랍비가 물었다. “당신은 아들이 있소?” “예,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어떠 했소?”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뻐했구요.”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당신의 아들도 늙어서, 또는 사고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물론이지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가령 지금 당신의 아들이 죽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매우 슬프고 괴롭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태어났을 때 기뻐했습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창조하였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따라 멸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 가면 슬퍼하십니다.”